

## 불운

가난한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하소연하였습니다.

“랍비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저는 손대는 것마다 실패합니다. 우산을 팔면 비가 오지 않고, 수의를 팔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랍비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빵장사를 하거라. 네가 빵을 팔면 최소한 굶지는 않으리라.”